

<2014년 7월 16일 수요말씀>

자기 책임을 하여라

<책임>은 목적을 달성하게 하고, 희망을 이루게 한다

본 문 요한복음 16장 21-24절

할렐루야!

영원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빕니다.

이번 주 주일에는 <자기 책임 노선>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.

오늘도 <책임>에 대한 말씀을 해 주겠습니다.

오늘 말씀의 주제는 ‘자기 책임을 하여라.’입니다.

그러면서 ‘책임에 대한 답’을 말해 주겠습니다.

→ <책임>은 ‘목적’을 달성하게 하고 ‘희망’을 이루게 합니다.

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
축원합니다.

<말씀 시작>

하나님이 인간에게 ‘최고로 합당한 법’을 정하셨으니, 곧 <인간 책임분담>입니다.

인간이 <책임분담>을 하면 편하고 좋고, <책임분담>을 안 하면 고통스럽고 일이 안 되도록 ‘최고로 합당한 법’을 정해 놓으셨습니다.

성자는 말씀하시기를

“하나님이 다 해 줄 수 없다. <큰 것>은 ‘하나님’이 해 주시지만, <작은 것>은 ‘자기’가 노력하고 연구하고 수고하면서 책임을 해라. <차를 운전하는 법>을 배우고 자기가 운전하듯, <인생 사는 법>을 배우고 자기 인생은 자기가 운전하면서 책임을 다해라.” 하셨습니다.

<큰 것>은 ‘하나님’이 해 주시면, <작은 것>은 ‘자기’가 노력하고 연구하고 수고하면서 <책임분담>을 하라고 했지요?

이는 마치 ‘부모’가 농사를 짓고 자녀들에게 곡식을 주면, ‘자녀들’은 자기 개성대로 연구하고 수고하여 그 곡식을 가지고 ‘떡’을 만들든지, ‘밥’을 만들든지, ‘빵’을 만들든지, ‘각종 음식’을 해 먹는 것과 같습니다.

‘하나님’이 우리에게 <먹을 것>을 주셔도, 결국 ‘자기’가 그 음식을 먹어야 존재하고, ‘자기’가 먹어야 맛을 느끼고 보람이 있으며, ‘자기’가 먹어야 기쁨을 느낍니다.

‘하나님’이 <주는 것>은 하셔도 <먹는 것>은 못 해 주십니다.
<먹는 것>은 ‘우리 각자’가 해야 됩니다.

‘하나님’은 <우주>와 <지구>와 <천지 만물>을 창조해 주셨습니다.
<사는 것>은 ‘인간’이 해야 됩니다.

‘인간’이 지구에서 만물과 함께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

고, 하나님과 성자가 보낸 자를 사랑하고, 하나님과 성자가 보낸 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. 그래야 구원받고 휴거되어 천국에 갑니다. → 이것은 <자기 책임>입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★ <책임>은 자기를 존재시키는 데 있어서 ‘숨 쉬는 것’ 같이 중요합니다.

아무리 사랑하는 애인이라도 자기 대신 숨을 쉬어 줄 수는 없습니다. 결국 자기가 숨 쉬는 것을 안 하면, 자기가 존재하지 못합니다.

그래서 <책임>은 자기가 존재하는 데 있어서 ‘숨 쉬는 것’ 같이 중하다는 것입니다.

★ 또한 <책임>은 자기를 존재시키는 데 있어서 꼭 해야 될 ‘자기 일’ 입니다.

아무리 사랑하는 애인이라도 자기 대신 먹어 주고 잠을 자 줄 수 있겠어요? ‘먹는 것, 잠자는 것’ 을 누가 대신 해 준다면, 결국 자기는 존재하지 못합니다.

자기 마음과 성격을 고치는 것, 옷을 입는 것, 먹는 것, 자는 것은 ‘형제’ 도 ‘애인’ 도 못 해 줍니다.

그래서 <책임>은 자기가 존재하는 데 있어서 꼭 해야 될 ‘자기 일’ 입니다.

→ ‘형제나 애인’ 이 책임을 해 줄 것도 있지만, 자기가 존재하려면 결국 ‘자기’ 가 책임을 해야 됩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★ <만물>도 각자 ‘자체 책임’ 과 ‘인간의 책임’ 으로 성장하며 존재합니다.

<나무 한 그루>를 보겠습니다.

- 나무는 ‘자기’ 가 햇빛을 보고, 비를 맞고, 인간이 퇴비를 주면 퇴비를 빨아들이며 ‘**자체 성장**’ 하고 존재합니다.

- 그리고 ‘인간’ 이 때마다 물을 주고, 벌레를 잡아 주고, 퇴비를 주고 정성스럽게 가꾸면서 ‘**인간의 책임**’ 으로 성장하고 존재합니다.

★ <구원과 휴거>도 그러합니다.

‘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책임’ 이 있고, ‘구원자의 책임’ 이 있고, ‘인간 자체 책임’ 이 있습니다.

- **하나님**과 **성령님**과 **성자**는 <창조의 책임>을 하시어 ‘우주와 지구와 천지 만물’ 과 ‘인간’ 을 창조하시고, ‘영의 세계’ 와 ‘천국’ 을 창조하셨습니다.

또한 <지구상에 구원역사를 시작하는 책임>을 하시고, <메시아를 보내는 책임>을 하십니다.

또한 인간이 존재하도록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게 하시고, 태양을 모든 만물과 인간에게 비추시고, 바람과 공기와 갖가지로 역사하시며 <지구를 운행하는 책임>을 하십니다.

- **구원자**는 시대에 따라 하늘 앞에 조건을 세우고 나와서 <말씀을

받는 책임>을 하고, <그 말씀을 외치는 책임>을 하고, <죄를 사하는 책임>을 하고, 온 인류를 위해 조건을 세워 <천국의 길로 인도하는 책임>을 합니다.

- **인간**은 ‘만물’을 통해, ‘양심’을 통해, ‘말씀’을 통해 <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알고 믿고 사랑하며, 구원자를 알고 따르는 책임>을 하고, <말씀을 듣고 행하는 책임>을 해야 됩니다.

★ <메시아의 책임>과 <구원받을 자들의 책임>은 완전히 다릅니다.

‘메시아’는 <말씀을 받아서 전해 줄 책임>이 있습니다.

<죄를 사해 주고 용서할 책임>이 있습니다.

‘구원받을 자들’은 <말씀을 듣고 지킬 책임>이 있습니다.

죄를 지었으면 <회개할 책임>이 있습니다.

생명의 말씀을 전해 줘도 <듣는 것>은 구원자가 대신 해 줄 수 없습니다. 또한 <행하는 것>은 구원자가 대신 해 줄 수 없습니다. 또한 죄를 지었을 때 <회개하는 것>은 구원자라도 대신 해 줄 수 없습니다.

살아 있어도 숨은 자기가 쉬어야 하고, “밥 먹어라.” 해도 자기가 먹어야 하고, “나쁜 것은 하지 말아라.” 해도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하고, “너를 위해 꼭 할 일을 해라.” 해도 결국 자기가 해야 됩니다.

최종적으로는 결국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하면서 <자기 책임>을 해야 됩니다.

말씀을 줘도 결국 자기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행해야 하고, 용서

해 줄 테니 회개하라 해도 자기가 죄를 회개해야 하고, 하늘의 사랑을 받아도 결국 자기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구원자를 사랑하며 따라야 됩니다.

‘구원과 휴거’ 는 최종적으로 <자기 책임>에 따라 좌우됩니다.

인간이 <책임>을 하는 만큼 마음과 행실이 변화되고, 혼과 영이 변화됩니다. 인간이 <책임>을 하는 만큼 더 좋아지고, 발전하고, 얻게 되고, 기쁨과 희망이 이루어집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성자와 분체가 <인간 책임>에 대해서 말할 때는 반드시 성자도 책임을 다하고 분체도 책임을 다하면서 “이제 네 책임을 해라.” 하십니다.

마태복음 7장 7절을 보면, “구하라. 주실 것이요. 찾으라. 찾을 것이요. 문을 두드리라.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.” 했습니다.

구원자는 책임을 다해 놓았으니, 이제 너희가 <구하는 책임>을 하라는 말입니다.

요한복음 16장을 보면, 예수님은 그 시대를 위해 ‘모든 조건’ 을 다 세우고 ‘모든 책임’ 을 다하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.

“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,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.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,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.

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

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.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. 그리하면 받으리니, 너희 기쁨이 충만 하리라.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,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.

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,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. 보라.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, 벌써 왔도다.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.

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, 담대하라.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.” 했습니다.

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미 세상을 향한 책임을 다 완수했습니다. 그리고 “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해라. 그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리라.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, 너희는 담대히 행해라.” 했습니다.

이 시대도 그러합니다.

하나님은 ‘때’를 정하고 <역사>를 펴시고, 성자는 ‘때’에 따라 분체를 통해 <말씀>을 주시고, 분체는 ‘때’에 따라 합당한 <조건>을 세우면서 말씀을 받아 줍니다.

그리고 “이제 너희가 구해라. 구하는 대로 주시리라.
그리고 행해라. 행하는 대로 얻으리라.” 합니다.

‘태양’이 떴어도 ‘눈’을 감은 사람은 안 보입니다.

<모르는 자>는 ‘눈을 감은 자’입니다.

<모르는 자>는 ‘그 세계의 잠을 자는 자’입니다.

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정한 때가 되어, 이제 <마지막 때>입니다.
고로 ‘이 시대에 줄 것’ 을 다 주셨습니다.
‘시대의 각종 축복’ 을 주셨습니다.
‘휴거의 축복’ 까지 주셨습니다.

그러나 뇌가 굳어서 ‘휴거의 인도자’ 가 누구인지도 모르고, 말씀을 듣고 있어도 말씀 따로, 행실 따로 하니 ‘말씀의 핵’ 을 모르고, 육적으로만 자기 좋은 것에 처해 불쌍하게 살고 있습니다.

또한 자기가 <구하는 책임>을 안 하고, <믿는 책임>을 안 하고, <행하는 책임>을 안 하니, 얻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.

‘인생의 잠’ 을 잘 때는 ‘자기에게 해당되는 축복’ 이 얼마나 물처럼 흘러갔는지 모릅니다. ‘인생의 잠’ 을 깬 후에는 알고 탄식합니다.

이 시대 축복에 대해서, 휴거를 인도하는 자에 대해서, 성자에 대해서, 휴거의 가치에 대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인생의 잠을 자면서 ‘자기 축복’ 을 물처럼 흘려보내고 있는 자입니다.

저마다 기도하고, 말씀 듣고,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진실로 사랑하여 굳은 뇌를 풀어야 됩니다.

그리고 ‘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’ 이 무엇인지 알고, 써야 됩니다. ‘휴거의 가치’ 를 알고 어서 마지막으로 자기 책임을 해야 합니다. 모르면 평생 고생입니다.

어서 <생각>을 바로 하고,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며 자기 책임을 해야 됩니다. 믿습니까?

<잠시 쉬었다가>

자기 책임을 하려면, 어서 자기를 고치고 만들어야 됩니다.

사람이 <마음과 생각>이 잘못되어 있고, <체질>이 안 되어 있고, 자기를 만들어 놓지 못했기에 무엇을 하든지 자기 책임을 못 하고 힘들게 사는 것입니다.

자기 <마음과 생각과 체질>을 ‘성자’와 맞게 만들어 놓지 않으니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.

지난 부흥집회 말씀 기억나지요?

먼저 ‘칼’을 만들어 놓지 않으니, 음식을 만들 때 칼로 잘라야 하는데 ‘자기 손’으로 자르면서 “힘들다. 못 하겠다.” 하는 것입니다.

먼저 ‘포클레인’을 만들어 놓지 않으니, 포클레인으로 들 것을 ‘자기 손과 몸’으로 들면서, “힘들다. 불가능하다.” 하는 것입니다.

자기 책임을 하기 위해 자기를 고치고 만들려면, 잘 배워야 됩니다.

그래서 분체는 늘 말씀을 주는 책임을 다하며, 가르쳐 줍니다.

가르쳐 줘도 결국 자기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<듣고 받아들이는 책임>을 해야, ‘말씀과 힘과 능력’을 받아서 행하게 됩니다.

성자는 말씀하시기를

“자기를 고치고 만들고 나서 책임을 다하여라.

자기 책임을 다하려면, ‘안 된다. 못 하겠다’ 하는 <네 생각>부터 고쳐라. 자꾸 불의를 행하는 <네 행동>부터 고쳐라. 나 성자와 맞지 않는 <네 체질>부터 고쳐라.

자기를 고치고 만든 만큼 자기 책임을 하기 쉽다.” 하셨습니다.

자기 책임을 다하면, 휴거됩니다.

하나님은 때에 따라 <휴거 역사>를 시작하셨고, 성자는 분체를 통해 <휴거되는 말씀>을 주시며 휴거 때가 끝나기 전까지 포기하지 않고 역사 하시며, 분체는 시대 십자가를 지면서도 <희생과 사랑과 말씀의 조건>으로 더 할 수 없이 함께하고 있습니다.

이제 자기가 ‘차려진 밥상’을 먹고 소화시키면 됩니다.

자기가 ‘자기를 위해’ 고칠 것을 고치고, 만들 것을 만들고, 행할 것을 행하면서 <자기 책임>을 하면 얻을 것을 얻고, 희망을 이루고, 휴거도 이룹니다. 믿습니까?

그러나 책임을 하되, ‘제때’ 해야 됩니다.

밥상 치우고 나서 밥 먹으려 하면, 없어서 못 먹습니다. 밥상이 차려졌을 때 자기가 책임을 하여 먹어야 하듯이, ‘하나님의 때’에 따라서 <자기 책임>을 해야 수고한 대로 얻게 됩니다.

사냥꾼이 짐승이 지나간 후에 총을 쏘든지 울무를 놓으면, 책임을 해도 헛수고입니다. <자기 책임>도 제때 못 하면, 헛수고입니다.

<전환>

* 이제 <책임>에 대한 ‘성자의 말씀’을 원본 그대로 전해 줄 테니 잘 듣고, <책임>을 뇌 속에 확실히 넣고 행하기 바랍니다.

<성자의 말씀>

* 설교자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할 것.

소리만 지르지 말고, 심정을 담아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할 것.

결국 <자기 책임>을 못 해서 될 것이 안 되느니라.

<자기 책임>을 못 해서 실패하고 손해를 보느니라.

<책임>은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느니라.

‘배우고 아는 것’ 도 <자기 책임>이니라.

‘깊은 진리를 배우는 것’ 도 <자기 책임>이니라.

<책임>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고 알고, 자기 책임을 다하여라.

<책임>에 대해 늘 주께 배우고, 코치 받고 하여라.

<자기 책임>이 무엇인지 기도하여 나 성자에게 물어보고 하여라.
그러면 쉽게 하게 되느니라.

희망을 이루려면, 책임을 다하여라.

놀고, 게으르고, 태만하고,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나 성자와 주의 마음을 거스르는 일만 하고, 자기 책임을 안 하면 결국 함정에 빠지게 되어 거기서 정한 기간까지 고통을 받아야 되느니라.

<자기 책임>에 성공하면, 희망의 이상세계이니라. 책임을 다하여라.

‘성자 사랑’에 있어서 <자기 책임>을 다하면, 휴거되느니라.

책임을 하는 만큼 희망이 이루어지느니라.

‘이 시대 성자의 진리’를 배우고 아는 것은 <자기 책임>이니라.

자기가 책임 하려 하면, 다 할 수 있느니라.

자기가 책임을 못 하겠으면, 돈을 주고 사람을 시켜서라도 하여라.

<책임>은 ‘보증서’와 같고, ‘현찰’과 같으니라.

<책임>은 ‘어디까지’이겠느냐. ‘완전히 될 때까지’다.

그냥 무턱대고 쉬고 놀지 말고, 책임을 한 후에 쉬고 놀아라.

<자기 책임>이 ‘행복’이니라. 책임을 해야 행복을 얻게 되느니라.

<책임>은 ‘얻을 것에 대한 조건’이니라.

아이 밴 여자는 ‘자기가 아이를 낳는 것’이 책임이니라.

자기 책임을 한 자는 ‘승리한 자’로서 기쁨과 영광을 누리느니라.

자기가 할 책임을 하지 않고 천국에 간 자는 없느니라.

<자기>가 ‘죄’를 지었으니, <회개>도 ‘자기’가 해야 되느니라.

<휴거>는 ‘자기 책임, 분체 책임, 성자 책임’ 으로 이루어지느니라.

<책임>이라는 ‘목적’ 을 완성하여라.

‘매일 그 날 할 일의 책임’ 이다.

모든 일에는 <책임>이 따르느니라.

<책임>을 해야 ‘완성’ 되고 ‘희망’ 을 이루느니라.

할 일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<자기 책임>을 몰라서 안 하기 때문이
니라.

때가 되어 <자기 책임>이 자기 앞을 지나가도 모르고 있구나.

이는 <책임>에 눈을 못 뜨고, 잠을 자고, 죽어 있기 때문이니라.

자기가 할 일인데,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. ‘하나님이 할 일’ 인가,
‘성령님과 나 성자가 할 일’ 인가, ‘내가 할 일’ 인가 생각해 보아라.

<자기 책임>이지만, ‘형제’ 나 ‘사랑하는 자’ 가 붙어서 같이 해
줄 수 있으면, 지혜롭게 같이 하여라.

사람의 각 지체마다 ‘자체 책임’ 이 있고, 서로 도우면서 책임을 하
는 ‘공동 책임’ 이 있느니라. 사람의 일도 그와 같으니라.

어떤 일을 놓고 ‘자기’ 는 책임을 했는데 ‘상대’ 가 책임을 못 하
면, 안 되기도 한다. 고로 <공동의 책임>은 협조하고 합심해서 하여라.

하나님과 성령님과 나 성자가 책임을 해 주고, 구원자가 사명을 하며 책임을 해 줘어도 자기가 <믿고, 배우고, 행하는 책임>을 못 해서 ‘구원’도 ‘휴거’도 안 되는 것이니라. 깨달아라!

깊은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감동시켜서 <자기 책임>을 하게 역사하시니, <책임>이 생각나고 하고 싶어지느니라.

성자와 분체와 일체 되어서 하면, 서로 대화하면서 하니 쉽게 하게 되느니라.

<전환 : 말씀 마무리>

*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.

선생이 과일을 사다 놓고 안 썩게 관리만 했지, 시간이 없어서 먹지 못했습니다. ‘먹는 책임’은 안 하고 ‘관리’만 열심히 하니, 결국 과일은 썩어 버렸습니다.

<생명>도 그러합니다.

빨리 말씀을 가르쳐 주어서 시대를 깨달으면, 본인의 뇌에 시동이 걸려서 날아다닙니다.

그런데 전도자와 관리자와 강의하는 자가 의식하여 ‘말씀의 핵’을 안 가르쳐 주고 ‘관리’만 하다가는 그 생명이 힘이 없어서 결국 쓰러집니다. 그러니 사탄과 인사탄이 끌고 갑니다.

<자기 영>도 그러합니다.

어서 고칠 것을 고치고 자기를 만들어서, 자기 책임을 다하면서 자기를 변화시키고 휴거시켜야 됩니다.

<300선의 완성급 휴거의 영>이 되면, 무엇을 해도 마음이 놓입니다.

계속 자기가 걸길로 가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차원에서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. ‘때’가 되었고 ‘시간’이 없습니다.

어서 자기를 관리하면서, 고칠 것을 고치면서, 부지런히 자기를 만들고, 자기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. 그리고 자기 영을 휴거시켜야 됩니다.

<자기를 만들 시간>에 <자기 책임분담>을 해야만 ‘휴거’도 ‘자기 일’도 실패하지 않습니다.

<자기를 만들 시간>에 <자기 책임>을 다하지 않고, 다른 것에 시간을 뺏긴다면, ‘성공 길, 휴거 길’을 가다가 해가 저서 더 이상 못 가고 끝납니다.

<시간>과 <자기 책임분담>은 성공하는 데 있어서, 휴거되는 데 있어서 ‘기본 자료’입니다.

모두 지금 이때 귀한 시간을 뺏기지 말고, 부지런히 자기를 만들고 자기 책임분담을 다하여 <자기 목적>을 달성하고 <자기 희망>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!